

2022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성과자료집

우리는 책방에서 배운다

목차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운영사례

5

도심권

종로구 과학책방 같다	8
종로구 마음책방 서가는	12
종로구 사진책방 고래	16
중구 소요서가	20
용산구 책방 죄책감	24
종로구 풀무질	28

동남권

강동구 아운트	34
---------	----

동북권

도봉구 도도봉봉	40
동대문구 무아레 서점	44
성동구 트립북앤페이지	48

서남권

관악구 그날이오면	54
양천구 꽃피는책	58
관악구 밝은책방	62
관악구 살롱드북	66
금천구 원테이블	70
관악구 책이는당나귀	74
동작구 티립북스토어	78

서북권

마포구 가가77페이지	84
마포구 정치발전소	88
마포구 책방연희	92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소개	98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 소개	99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운영사례

| 도심권



종로구 과학책방 갈다
종로구 마음책방 서가는
종로구 사진책방 고래
중구 소요서가
용산구 책방 죄책감
종로구 풀무질



과학책방 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10길 18 (삼청동)

과학이 대중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과학책을 큐레이션하고 판매하는 서점입니다. 과학책을 함께 읽어가는 모임과 과학 신간 북토크를 진행합니다.

과학책방 갈다의 프로그램

1. 과학책 읽기 모더레이터 과정 – 《코스모스》 편
2. 갈다의 별밤책술 리부트
3. 옵시디언을 이용해 과학책 관계 연결하기
4. 과학책방 갈다와 풀무질이 함께하는 지구인의 우주 공부

과학책을 즐겁게 읽는 경험을 제안하는 곳

과학책방 갈다는 삼청동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아늑한 서점입니다. 천문학자인 대표님이 어릴 적 살던 주택을 개조해 만든 갈다는 지하의 강연장, 1층의 책방, 2층의 카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가의 95%는 과학 분야의 대중 교양서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5%는 독서나 공부에 관련된 책으로 채워져 있어요. 책방 이름 '갈다'는 갈릴레오와 다윈의 첫글자를 따왔습니다.

과학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

과학책 저자들이 갈다에서 신간 북토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학자는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한 분이라면 꼭 한 번 참석해보세요. 과학자를 탐구하는 책읽기, 메이커 워크숍, 갈다의 SF 분설회, 삼청공원 생태도감 어린이 제작단, 매달 한 권의 과학책을 같이 읽는 갈다북클럽 등 과학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꾸준히 열리고 있답니다.

과학책 읽기 모더레이터 과정 – 《코스모스》 편

과학책 독자는 일반 도서의 독자보다 수가 적고, 과학책이 독서모임의 주제 도서가 되는 경우도 적어요. 과학책 독서에 도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과학책을 잘 읽을 수 있는지, 또한 과학책을 함께 읽을 때 모더



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그 방법을 나누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분들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과학책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10회에 달하는 강의를 듣는다는 것

대부분 10회의 강의를 소화하며 과제도 제출해야 하니 다들 어렵다, 힘들다 푸념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다 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과제를 내시는 분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괴롭고 힘들지만, 분명 즐거움도 함께 찾으셨기 때문에 다음 과제를 제출하는 원동력을 얻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서점은 고유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책에 기반한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점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은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보다 공통의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모이게 된다면 이후 서점의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이 되겠죠. 서점에서 사람과 정보, 감동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유지에 힘써볼 예정이에요.

과학책방 갈다의 다음 발걸음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에서 시도했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심화 과정을 열게 될 수도 있고, 참가자들과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 과정들을 카페에 잘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목표예요.

참여자 후기



| “별밤책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야외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모기에 물려 힘들지만 우주 얘기를 하늘이 보이는 밑에서 들어서 좋았습니다. 강사는 현재 과학분야의 천문학자, 유튜버인데 실제 와서 강의를 해서 신기했고,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분을 봐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책을 쓰신 분이 와서 강의를 해서 책과 연관된 이야기를 해주시니 책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책방 서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21 1층

책으로 마음건강을 돌보는 독서치료를 기반으로 만든 심리 전문 책방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맞춤형 책을 처방하며,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마음책방 서가는의 프로그램

1. 독서치료사와 함께하는 “자기돌봄 책읽기”
2. 정신과전문의 허휴정의 “몸으로 마음을 돌보는 법”
3. 그림책 심리학자 신혜은의 “몸으로 만나는 그림책 심리여행”

몸과 마음이 힘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방

마음책방 서가는은 책으로 마음건강을 돌보는 독서치료를 기반으로 만든 심리전문 책방입니다. 독서치료사인 책방지기가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맞춤형 책을 처방하며, 정서적 글쓰기로 나를 표현하는 글쓰기 심리워크숍, 책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자기돌봄 독서치료 워크숍 등을 진행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방을 꿈꾸고 있습니다.

독서치료 또는 비블리오테라피

다양한 심리치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학으로 마음을 치료하는 ‘독서치료(비블리오테라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책방에서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마음을 돌보는 다양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책속의 문장을 읽고 자신에게 적용하여 내면 이야기를 언어화하면서 스스로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로 독서치료입니다.

독서치료사와 함께하는 “자기돌봄 책읽기”

갈수록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책이 가진 언어의 힘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책을 통해 과거의 ‘나’를 돌아보며, 현재의 ‘나’를 들여다보고, 미래의 ‘나’를



그려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의 이야기와 인물, 그리고 문장을 나누면서 자기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배우면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할 수 있는 공감과 위로의 힘

멀리 부산에서 혜화동까지 책방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오신 60대 후반 어머니를 모시고 온 40대 자매가 생각납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따라오신 어머님과 동생 분은 처음에는 불편해 했지만 참가자들의 지지와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차츰 마음을 문을 열었고,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에는 조금이나마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며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자리가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새로운 연결 방식

코로나19로 책방에도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연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줌이라는 앱으로 부랴부랴 책방의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

환하기 시작했는데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외국에서도 책방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고, 지금은 책방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비와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한 걸음 더, 마음책방 서가는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을 통해 마음책방 서가는의 프로그램을 알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대중성’을 겸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 사람과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공간이 되고자 힘쓸 것입니다.

참여자 후기



| 책이라는 매개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치유, 문학치료를 통해 나와 타인의 마음을 진중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 가까이에 있는 동네서점이 풍성한 문화생활의 터전이 되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문화 허브 역할을 한다는 것이 좋았고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책방 고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아카이브빌딩 지하1층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내외 사진 관련 출판물과 독립출판물을 꾸준히 소개하는 사진 전문 책방. 독서클럽 “사진책 함께 읽기”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진책방 고래의 프로그램

1. 글로 1 “창작자를 위한 글쓰기”
2. One Photo Day
3. 글로 2 “창작자 브랜딩”
4. “나만의 사진책 만들기” 더미북 워크숍

외로운 작업자들에게 동료와 응원을 이어주는 만남

사진책방 고래는 사진 전문 책방으로 일반 서점은 물론 독립책방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국내외 사진 관련 출판물과 독립출판물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진책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 외에도 사진과 이미지, 그리고 시각예술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독서클럽 ‘사진책 함께 읽기’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책방입니다.

책방을 찾는 밭걸음

동네주민들도 오시지만 보통은 사진책을 보러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과 이웃의 사진 갤러리의 전시회를 볼 겸 해서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방문객보다 보다 넓은 계층에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작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

고래Talks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전시와 사진책 그리고 독자/관객과의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적으로 사진가나 작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래Talks와 더불어 “사진책 함께 읽기”는 코로나 기간만 제외하고 책방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갖습니다.



함께라서 가능한 일들

더미북 워크숍에 오신 참여자가 워크숍 기간 내내 응원을 받았다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자신의 작업을 더 발전시키고 이어나갈 힘을 얻어 간다고 말씀해주셔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외로운 작업자들에게 동료와 응원을 이어주는 책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작게나마 이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만의 사진책 만들기

사진책방에서 사진책을 다루다보니 많은 독립출판물을 훑어 만들어 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경험들이 흩어지지 않고 쌓여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좀 더 덜 헤매고, 마음 고생도 덜고, 비용도 아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오다가 모여서 함께 자신의 책을 만드는 워크숍을 만들어 보자는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넓어질 사진책방 고래의 세계

사진책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단계별 워크숍을 기획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실전 더미북 만들기와 인쇄와 제책

에 관한 실질적인 실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실전 워크숍까지 하 나의 플로우를 따라가면 한 권의 사진책을 만들 수 있는 워크숍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창작자를 위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강좌로 좀 더 폭넓은 담론과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책방의 모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참여자 후기



| 소규모 수업이라 개인적인 피드백을 받고 결과물에 대해 구성원들과 심도 깊은 토의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흥미로웠어요. 초보자들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문턱이 낮아서 더 좋았습니다.



소요서가

서울특별시 종구 청계천로 160, 청계세운상가 바엘 309, 310호

을지로 청계상가 3층 데크에 위치한 ‘철학전문서점’으로, 전문가에게도 가볍지 않고 애호가에게도 무겁지 않은 서점을 지향합니다.

소요서가의 프로그램

1. 초심자를 위한 한 줄 철학
2. 문학으로 철학하기
3. 소요신간당

진정한 평생학습을 위한 연대와 소통과 체험의 공간

소요서가는 을지로 청계상가 3층 데크에 위치한 ‘철학전문서점’으로, 전문가에게도 가볍지 않고 애호가에게도 무겁지 않은 서점을 지향합니다. 현재 동서양의 철학고전부터 현대사회의 주요 쟁점들을 다룬 인문교양서까지 3000여 종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철학강의와 독서모임, 서평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서점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손 가득 책을 사는 사람들

주변 맛집을 찾아온 젊은이, 산책을 나온 가족, 점심시간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이 들릅니다. 소요서가를 검색해서 일부러 찾아와주시는 손님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온라인 서점에서 편리하게 책을 살 수도 있을텐데 일부러 멀리까지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봐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양손 가득 책을 사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을 많이 얻습니다.

매력적인 강의가 가득한 소요 아카데미

소요아카데미는 2021년 8월부터 1년간 진행했던 “서양철학사” 강의를 시작으로 “오십부터 페미니즘”, “철학입문강의:질문의 탄생”, “문학으로



철학하기”, “비극으로 철학하기”,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한국 근현대 미술사”, “서양미술사 명저 읽기” 등 다양한 철학/인문교양 강의들을 진행해왔습니다.

한 줄 철학

긴 글 아래에 세 줄 요약 또는 한 줄 요약을 달고 ‘더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고 덧붙이는 인터넷 문화가 있습니다. “한 줄 철학”은 이런 세태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철학사의 대표적인 경구 중 ‘한 줄’을 골라 함께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의 발전에 따라 두 줄, 세 줄의 철학으로 확장해가는 과정을 함께 해볼 수 있다면 진입 장벽이 높아보이는 ‘철학하기’의 첫 걸음을 한결 수월하게 디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 줄로 시작해 생각을 확장해가는 일

쉽게 회자되는 말들이어서 깊이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한 문장을 놓고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본 경험이 처음이라 신선했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초심자를 대상으로 한 철학 수업이 훈치 않았는데 좋은 기회였

다, 녹화한 수업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더욱 깊고 넓게 이어질 예정

아카데미소요에서는 “정치철학 고전 읽기” 강의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올해 10월 플라톤의 『국가』에서 시작하여 2023년 9월 밀의 『자유론』 까지, 1년간 총 12명의 정치철학 작품들을 강사와 함께 살펴보며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지 함께 비판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금요 신간읽기” 모임은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같은 형식으로 매월 1회의 모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참여자 후기



| 삶을 세상을 보는 시각과 자유로움을 주는 너무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 오랜만에 대학교 교양 같아서 유익했고,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철학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 좋았습니다.

| 혼자 공부하면 깨닫기 어려운 폭넓은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특히 지적 능력의 확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책방을 통해 다른 우물을 들여다보는 시간

책방 죄책감은 이름대로 내가 가진 ‘죄책감’을 책을 통해 탐구하는 책방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아픔에 대한 먹먹함, 다 내 탓인 것만 같은 불편함, 선한 양심 혹은 죄책감”이 ‘책방 죄책감’의 주제를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별, 폭력, 불평등, 양극화 등’ 깨어진 세상에서 벌어지는 아픔에 대한 책들을 큐레이션 합니다.

‘다른 우물을 들여다보기’ 프로그램을 열게 된 계기

‘홍은전’ 작가님이 쓴 <그냥, 사람>의 서문에 ‘다른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각자의 우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세상은 그런 우물들의 총합일 뿐이라고, 더 거대하고 더 유구한 우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우물들이 있을 뿐’이라는 글을 읽고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책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매체

책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가장 큰 역할이 내가 사는 우물을 넘어 다른 우물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가장 쉬운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방을 통해 다른 우물을 들여다보며 세계관을 넓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책방 죄책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8, 2층

차별, 폭력, 양극화, 장애 등 우리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책방. 책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대해 고찰합니다.

책방 죄책감의 프로그램

1. 다른 우물 들여다보기
2.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3. 나를 이해하는 치유적 글쓰기



평생교육과 동네책방

평생교육도 시기에 따라, 장소에 따라, 참가자에 따라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제 짧은 경험상 동네서점에서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교육을 기획하고 교육자를 섭외하기란 쉽지 않은데, 사업을 지원해주는 기관과 동네서점이 함께 교육자를 섭외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서점으로 연결이 된다면 같은 주제로 지역과 사람이 더욱 긴밀하게 공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에서 책방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된 지금이지만, 사람은 물성이 있는 ‘오프라인’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과 만나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수요가 줄겠지만 동네에서 적은 인원이 모여 생각과 취향 등을 나누고 관계를 맺는 소규모 모임의 수요를 동네서점이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프로그램

지금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를 통해 ‘장애인 인권’이나 ‘페미니즘’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내년에도 사회의 뜨거운 화두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이나 동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참여자 후기



- |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 사람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 타인과 함께 쓰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줘서 감사합니다.
- | 연애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세상이 만든 연애와 사랑의 기준을 인식한 후, 나만의 기준을 잘 세워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풀무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19 지하 1층

책방 풀무질은 약 37년간 종로구 성균관 옆을 지켜온 인문사회과학책방입니다. 2019년 두 청년이 인수하여 현재는 ‘동물해방물결’과의 합병을 추진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풀무질의 프로그램

1. 종평등: “인간–동물–자연의 새로운 관계 맺기”
2. 강유가람과 함께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수업
3. 과학책방 갈다와 풀무질이 함께하는 “지구인의 우주공부”

어떤 존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공간

‘사상의 불을 지피는 책방, 풀무질’은 1985년 성균관대학교 앞에 처음 문을 연 뒤 36년째 자리를 지키며, 대학교 앞 인문사회과학서점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동아리 이름에서 따온 ‘풀무질’은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꿈꾸는 청년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총 5번 주인이 햇불을 전달하며 꾸준히 살아남아 불씨를 지키고 있습니다.

책과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책방

세대로 본다면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 쪽을 공부하시는 어르신분들도 저희를 찾으시고, 젊은 직장인 분들이나 대학생분들도 찾으십니다. 교재를 찾으시기도 하고 저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동물권, 기후위기 관련 책을 찾으러 일부러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 쪽을 찾는 분들도 와주세요. 공통점이라면 ‘책과 공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풀무질의 색채가 드러나는 프로그램들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 북토크를 열고 있습니다. 동물권이나 기후위기, 페미니즘은 물론이고 공공성과 같은 사회 의제,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지역성과 더불어 미술 노동자에 관해서나 영화 수업까지 최대한



폭넓은 주제로 강의를 꾸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현장 강의와 온라인 좀 강의를 병행하여 물리적 거리나 코로나와 같은 사태에 대응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강유가람과 함께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수업

처음에 강유가람 선생님을 섭외할 때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아닌, 선생님께서 찍으신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의 행사를 기획했어요. 하지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욕심을 내어 규모를 키워보았습니다. 타인이 찍어놓은 걸 보면서 떠들기만 하기보다는 직접 내 주변을 찍고, 기록을 편집하고, 유의미한 무언가를 남기는 경험은 정말 마음먹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유가람 선생님의 이름값도 분명 힘이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책방의 태도

저는 독립서점의 주요한 차별점을 ‘공간성’에 두고 싶습니다. 그 책방만의 역사, 책방만의 분위기, 그 책방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그 책방의 정체성이 되고 그 책방을 고유한 책방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읽기모임과 저희만의 기획 강의, 기획 연사들을 모시는데, 이외에 저희 책방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저희만의 컨텐츠는 무엇일까 아직 까지도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풀무질

어떤 존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공간. 무한 경쟁의 도심 속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에게 걷어차인 온갖 소외된 것들이 굴러들어와 여기서 안식을 취하고, 그렇게 사회에서 소홀하게 다뤄진 가치들을 오롯이 품고 보듬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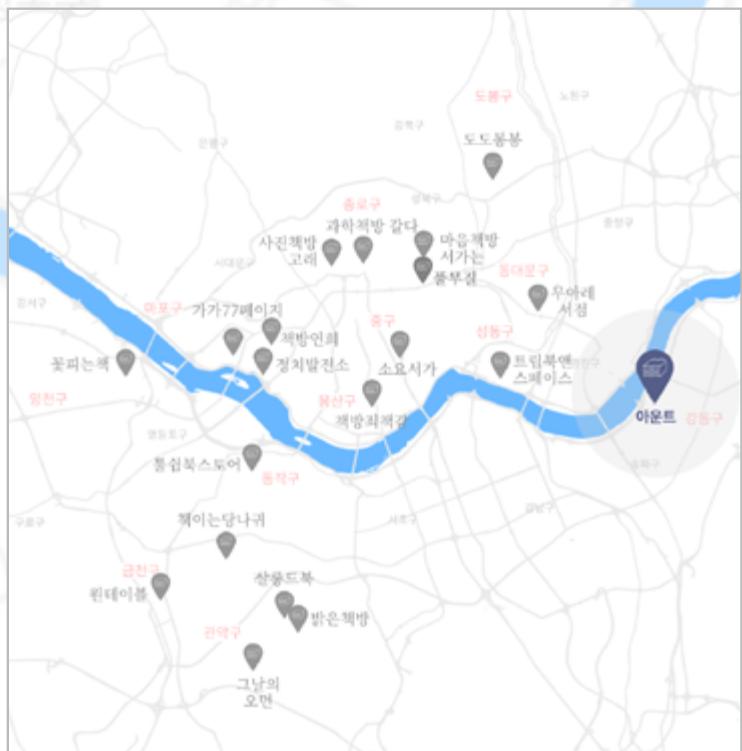
참여자 후기



- | 강유가람 감독님께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강연해주셔서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항상 머릿속으로만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께서 따뜻하게 격려해주셔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 새로운 인연이 생긴 것도 기뻤습니다.
- | 섬세한 커리큘럼과 피드백 덕분에 어떻게 작업을 기획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대문구

| 동남권



강동구



강동구 아운트



소리내어 읽고 새롭게 다시 듣는 입체적인 독서 경험

아운트는 출판 에디터인 큐레이터가 먼저 읽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엄선하여 추천, 판매하는 주말책방입니다. 다양한 취향과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성장을 돋는 주제를 다루는 소설, 에세이, 인문학 도서를 주로 소개하며 다양한 북클럽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

유독 서점이 부족하고 문화지원 사업도 드문 지역 환경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 친근하고 안전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떠올리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운트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북클럽, 낭독회, 북토크 등을 열니다. 도서관 대출카드를 모티브로 한 아운트 북클럽 회원 카드를 만들어드리고 책 구매나 유료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정성껏 기록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엘엘엘프로젝트에서 제작하는 제품들(북커버, 펜케이스 등)을 함께 판매하기도 합니다.

금요일 밤의 낭독회

“인생의 환희, 시간의 위로”라는 낭독회를 기획해 봤는데요, 특별히 낭독회를 연 이유는 눈으로 읽는 것에 더해 소리를 내어 읽고 그것을 다시



아운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6길 54 (길동) 101호

출판 에디터이자 큐레이터가 먼저 읽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엄선하여 추천, 판매하는 서점으로 개인의 성장을 돋는 도서를 소개합니다.

아운트의 프로그램

1. 토요일의 필사회 “소로의 자연 속으로”
2. 금요일 밤의 낭독회 “인생의 환희, 시간의 위로”
3. 뜻밖의 만남
4. “크래프트 테라피” 워크숍



듣는 입체적인 독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낭독을 통해 책의 내용에 더욱 몰입하는 경험, 그리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낭독, 언제 처음 해보았나요?

참석자 중에는 어린 시절 선생님이 시켜서 교과서를 읽어보았던 이후로 낭독을 처음 해보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담백하고 차분하게 한 줄씩 읽어나가며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연결같이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며 연결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칫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 수록 그 연결성을 놓치지 말아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방법으로 독서와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동네책방은 지역 네트워크와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배움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과 비대면이 줄 수 없는 직접적

인 만남의 즐거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운트의 내일

필사와 낭독 등 다양한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신 분들이 더욱 자주 책과 책방을 찾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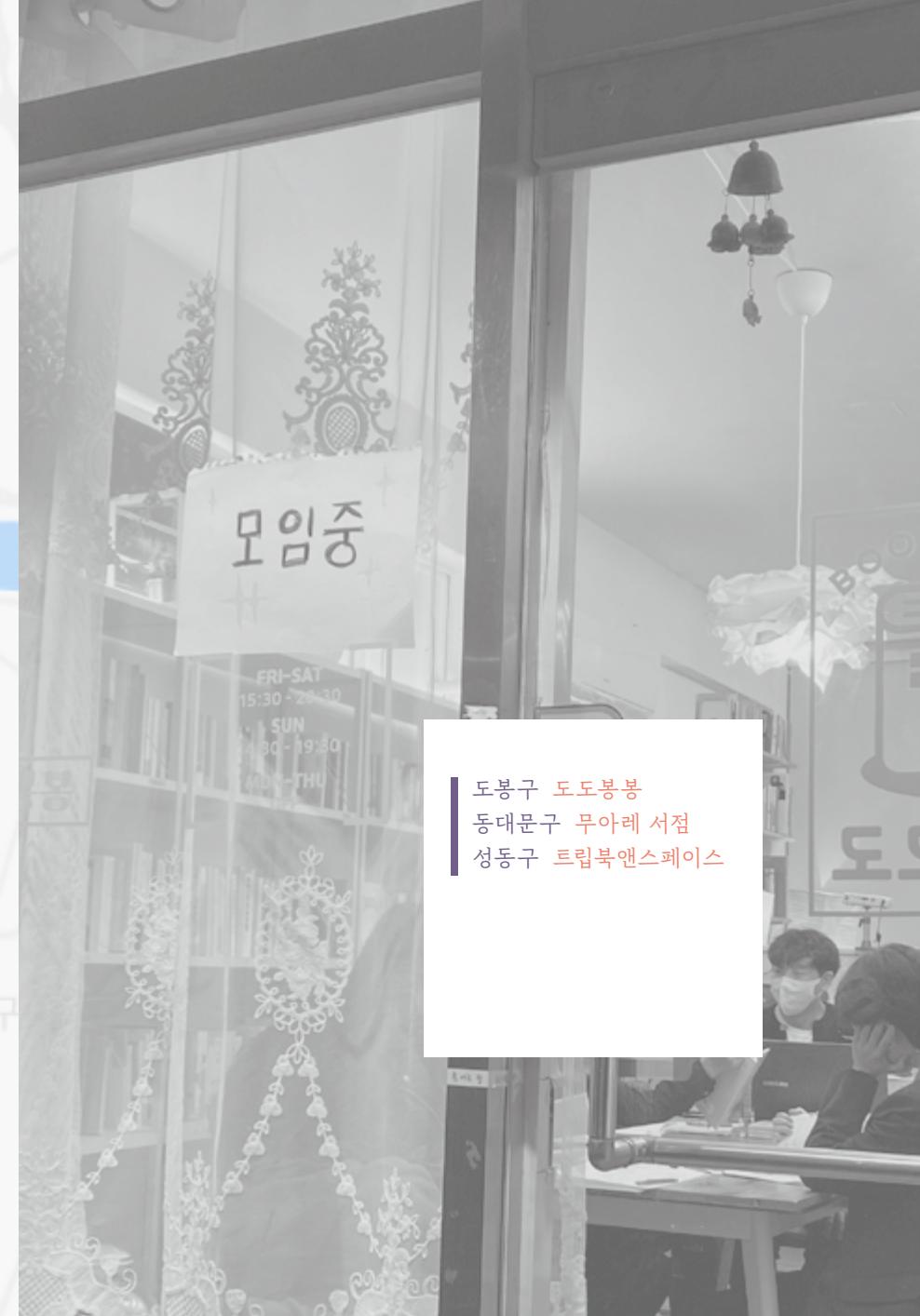
참여자 후기



| 혼자 읽는 것과는 달리 다른 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통해 되돌아보게 되는 생산적 시간을 보냈습니다.

| 북바인딩 수업을 평소 듣고 싶었는데, 지역 내 서점을 통해 배우게 되어 좋았습니다.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동북권





도도봉봉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14길 57 (창동) 1층

두 명의 문학전공자와 한 명의 시각예술전공자가 만나, 문학 분야와 예술 분야의 책을 소개하며, 도봉이라는 지역을 재해석한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도도봉봉의 프로그램

1. “전쟁을 위한 여성은 없다” 독서모임
2. “첫 책을 만드는 에세이 작가를 위한 안내서”
3. “소설가가 알려주는 우리나라 현대 단편소설 독해법”

서로의 팬이 되어 가는 글쓰기 모임

도도봉봉은 도봉구에 있는 작은 동네서점입니다. 쌍문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둘리의 고향이자,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오징어 게임>의 배경이 된 곳이에요. 도도봉봉은 2017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어요. 도봉구에서 제일 처음 생긴 서점이고, 제일 오래된 서점입니다.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는 제목부터 이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도봉봉이라는 서점 이름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 온 서점이고, 남녀노소 구분없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깊이 알아가는 장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었으니까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바로 ‘우리동네’ 더하기 ‘책방 배움터’가 되는 것이죠.

‘첫 책을 만드는 에세이 작가를 위한 글쓰기 안내서’

에세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솔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처음 쓰는 사람도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람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글을 통해 사람들



을 알아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글을 같이 쓰는 분들도 서로의 글을 열심히 읽고 합평해주면서 서로의 팬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보듬어주는 글쓰기 모임

초반에는 솔직한 글을 쓰기 어려워했던 참가자들이 “이곳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연은 다른 곳에서 절대 말하지 말 것”이라는 서약서를 쓴 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특히 신원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던 참가자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마음을 열고 품고 있던 이야기를 써 오셨어요. 5주간의 모임에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계획하고 있던 산티아고 순례길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며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책방의 모습

코로나를 겪으며 크건 작건 혼자라는 외로움과 연결에 대한 갈망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다들 실제로 만나는 모임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임이 마음에 들면, 아주 멀리서도 찾아와 주세요. 동네서점들은 작은 섬의 등대처럼 각 지역마다 골목이나 문을 열고 불을 밝히

며 사람들을 잇는 점 같아요. 이 불빛들이 꺼지지 않는 한 느슨하고 너그러운 취향의 연대는 계속 되겠지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롭게 사람을 만나는 공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제도권의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서로 다른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레 소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의 서점 모임은 누군가 한 명이 권위를 갖기보다, 조금 더 알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모임을 이끄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회에선 직급이나 나이로 나뉘던 사람들도 이곳에선 관심사로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참여자 후기



| 참여자들의 글을 읽고 리뷰하면서 같이 성장해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줌으로 진행된 ‘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오프라인보다 부담이 덜되어 좋았어요.

| 가까운 동네에서 이웃들과 만나 같이 책을 읽고 책에 대해 깊이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이 생활의 질을 높여주었습니다.



무아레 서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9길 9, 2층

공간을 테마로 하여, 집/동네/도시 등 생활공간에 관한 책과 이야기를 소개하는 서점입니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사적이며 삶과 밀접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아레의 프로그램

1. 나의 사적인 집의 역사
2. 건축의 위로
3. 서울 알갱이 탐험

개인의 경험이 모임으로, 사회로 확장되기를

무아레 서점은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 2층에 있습니다. 공유주택 안에 있는 만큼 집/동네/도시라는 공간을 키워드로 한 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책을 살 수 있는 서가 외에 세미나실, 작업을 할 수 있는 큰 테이블, 전시공간, 영상 시청공간도 있어요. 1층 카페에서 음료를 사 서점 안에서 자유롭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들

장한평 지역을 필름사진으로 기록하는 “기웃기웃 기계도시산책”, 1인 주거 청년을 위한 실용지식 “한 칸 집을 위한 공간 독서모임”, “다른 집, 다른 삶” 등의 모임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손님들이 직접 모임을 개최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역사나, 일상공간에서 사진 찍기, 포스터 만들기 등의 모임을 서점 손님이 개최했어요.

서점에서 만난 사이

서점 주변에 맴돌면서 못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커뮤니티 데이를 열고 산책과 보드게임, 취향 밝히기 프로그램을 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20명이 넘게 오셔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들이 서로 뜻이 맞아서 러닝 모임, 가드닝 모임, 맛집 탐방 모임, 다큐멘터리 모임 등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더라고요. 서점에서 만난 사이란게 어



면 힘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나의 사적인 집의 역사

한 사람이 겪은 집의 역사가 그 사람의 일생을 보여준다는 말을 참고했습니다. 집에 관해 기록한 책과 작가님들을 통해 나의 집의 역사는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고요. 개인의 경험이 모임으로, 사회로 확장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1회차와 3회차에는 참여자분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2회차와 4회차에는 책을 쓰신 작가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밀하고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집에 대해 꺼내놓는 경험이 사람들을 단숨에 친밀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꺼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분들이 모임 시간이 끝나도 몇시간이나 아쉬운 마음에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반대로 집이 그런 내밀하고 사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무섭고, 어려운 기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아례의 속도로 천천히

서점 창업과 관련된 소책자 같은 걸 만들고 있어서 공간 창업과 관련된 워크숍을 연계해서 해보고 싶고요. 요즘 로컬이 관심사라 로컬 지역의 공간을 직접 방문하고 탐방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계속 시도할 것들은 많지만 저희의 속도로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후기



| “나의 사적인 집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배움터에 걸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책을 다 못 읽으면 참여하기 어렵겠다는 마음의 혀들을 많이 낚춰주기도 했고, 혼자 조용히 읽는 것과 다르게 소리 내 읽는 경험을 묘하게 참여자들과 동질감을 주었습니다.

| 이 동네가 잠시 빌린 곳이 아니라 잠시 살던 곳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트립북앤페이지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92 (성수동1가) 4층

관광학을 전공한 운영진의 눈으로 선별한 여행과 관광, 로컬 콘텐츠를 책과 전시를 통해 공유합니다. 서울숲 전망을 즐길 수 있는 루프탑 공간이 있습니다.

트립북앤페이지스의 프로그램

1. 지속 가능한 여행 속의 인문학
2. 도시디자인 속의 인문학
3. 축제여행 속의 인문학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생각을 나누는 아지트

트립북앤페이지스는 관광학 전공자들이 운영하는 여행서점입니다. 트립북앤페이지스의 트립(TLIB)은 Traveling Library의 약자이며, 여행하는 지식서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생각을 나누는 아지트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행과 관광의 관점에서 여행의 인문학과 여행의 사회학을 아우르는 큐레이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점과 관광학 연구소

트립북앤페이지스는 서점과 관광학 연구소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서모임과 북토크 뿐만 아니라 여행과 관련된 아카데미와 세미나, 전시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여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전파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행안내서보다는 인문학 서적과 사회학 서적

트립북앤페이지스는 여행서점이지만 일반적으로 ‘여행서적’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여행안내서보다는 인문학 서적과 사회학 서적으로 서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행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여행의 영향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큐레이션합니다. 종종 ‘여행서점인데 이런 책이 있네요.’하고 놀라시는 방문객이 있는데 왜 이런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지 설명해드리면 금세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답니다.

지속가능한 여행 속의 인문학

여행이 예전처럼 무분별한 방식에서 무언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여행(sustainable travel)’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음에도 아직 실질적인 방안들이 잘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트립북앤스페이스는 새로운 여행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여행을 소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여행 속의 인문학”을 기획하였습니다.

여행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생각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환경과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성 이슈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행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가자 중 한 분은 “지속가능한 여행 속의 인문학”에서 나눈 지속가능한 여행방법과 여행코스를 따라서 직접 강릉을 여행해 보았다고 후기를 전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로컬에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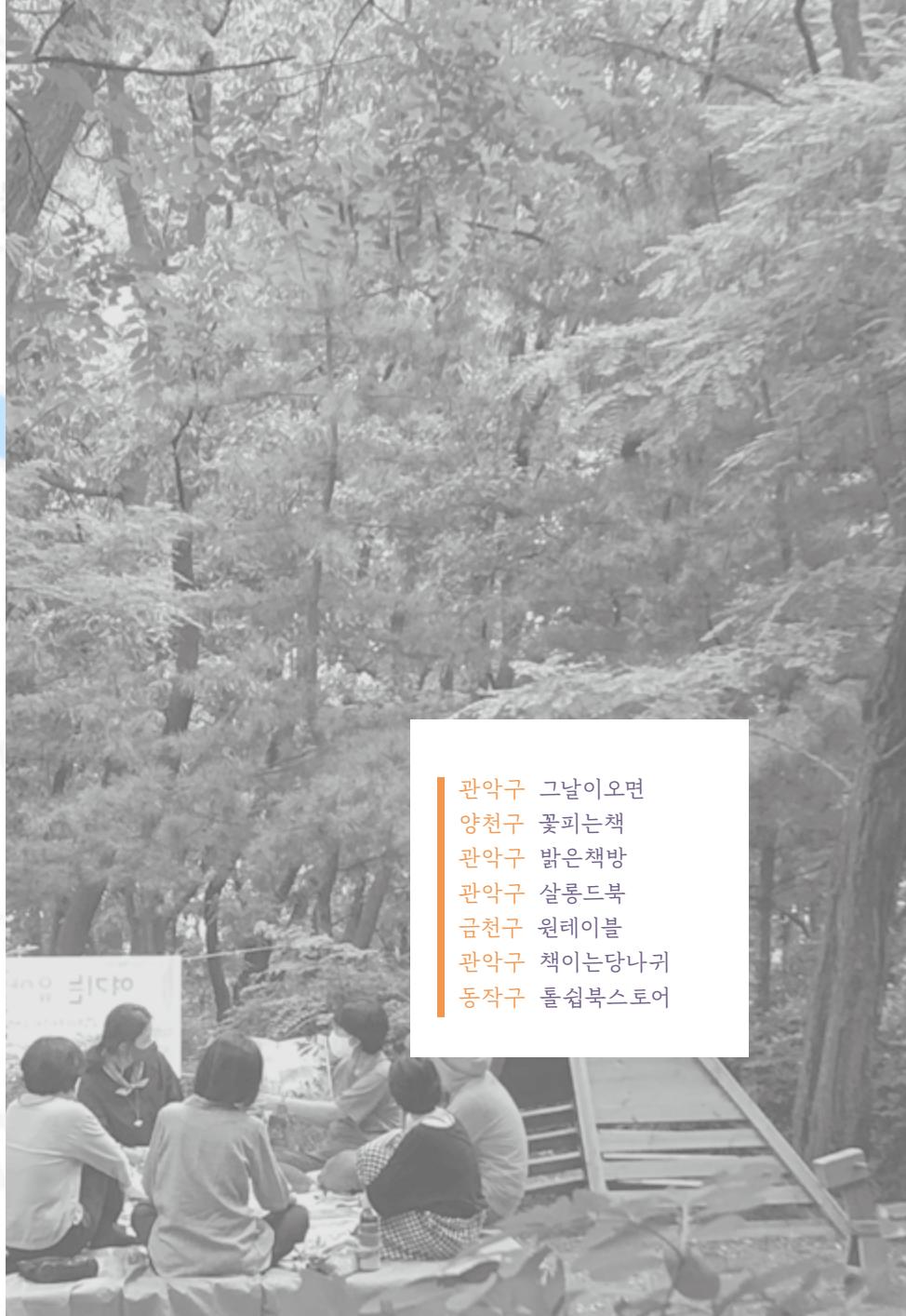
팬데믹 기간동안 로컬, 지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동네서점은 로컬에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점 고유의 시각과 큐레이션, 프로그램들이 로컬의 특성을 더욱 강조하는 장점이 될 것입니다.

참여자 후기



| 이렇게나 유익한 강연을 동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 <지속가능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각자가 어떤 여행을 하고 있고,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실천방법에 대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서남권



관악구 그날이오면
양천구 꽃피는책
관악구 밝은책방
관악구 살롱드북
금천구 원테이블
관악구 책이는당나귀
동작구 톨쉽북스토어



그날이오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14길 26 1층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인문사회과학 도서 전문서점.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적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을 보급하기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날이오면의 프로그램

- | | |
|--------------------|--------------|
| 1. 2022 기후생태강좌 | 5. 국가보안법 |
| 2. 청년, 학생과 오늘의 대학 | 6. 동양철학 - 노자 |
| 3. 편지로 글쓰기 | |
| 4. 손글씨로 만나는 나만의 문장 | |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거지

그날이오면은 서울대 앞에 1988년에 설립된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입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의 주인들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며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바탕이 될 수 있는 책들을 판매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청년학생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서점입니다. 현재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동일하게 가지고 변화된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오면을 찾는 사람들

그날이오면을 찾는 손님들은 인문사회과학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서울대 학생과 사회에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 관악구 통합도서관과 연계한 동네서점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네 주민, 인근 지역의 학교 선생님 등 다양한 이용자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 기후생태강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구의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애초에 그날이오면이 가지고 있던 정의로운 세상, 모든 생명들이 자신의 가치에 맞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



을 만들어 가는데 절대적인 주요과제라고 생각하여 시급하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이후의 변화

강의를 맡아주셨던 기후정의활동가분들, 또 그 강좌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난 9월 24일 사상 최대의 기후정의 행진에 함께하며 서로의 진실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후의 더욱 깊고 넓게 전개될 기후정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그날이오면

단골 이용자들의 서점 이용이 계속되었고, 관악구통합도서관 동네서점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공공도서관이나 인근 지역 학교의 도서관 도서의 납품등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동네서점과 공동체적 가치

동네서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독서를 통해 균형잡힌 인식을 견지함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가치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보다 좋은 책을 보급하는데 앞장서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교육적 역량을 드높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후기



| 평소 궁금했던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상황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탄소배출을 줄여야 할지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어요. 국가적인 전체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지역별 또는 분야별 논의 및 참여 가능한 실천행동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 ‘대학과 노동 강좌’를 들었습니다. 학내 노동자의 삶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늘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꽃 피는 책

& 숲 공작소

꽃피는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6길 58

용왕산 숲자락, 양화초등학교와 마주하고 있는 동네책방. 숲, 생태, 식물, 정원, 농사, 공동체 등을 주제로 책을 큐레이션합니다.

꽃피는책의 프로그램

1. 자연을 품은 인문학
2. 지구를 살리는 초록인문학
3. 시의 무한변신

책과 자연을 만나 숨 쉴 수 있는 곳

꽃피는책은 용왕산 숲자락에 자리한 동네책방입니다. '숲'을 주제로 한 독립서점으로 숲, 생태, 식물, 정원, 농사, 공동체에 관련된 책들이 책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식물가게와 숲공작소를 겸하다 보니, 책방엔 초록 식물도 많고 늘 꽃이 피어 있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어있는 책방, 나아가 책 문화를 활짝 꽂피우는 책방이 되고자 '꽃피는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심 속 작은 숲

다큐멘터리 방송작가 출신이자 숲해설가인 책방지기는 꽃 피는 책이 '도심 속 작은 숲' 같은 공간이 되기를 꿈꿉니다. 회색 도시,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숨 쉴 틈을 주는 공간,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무의 생명력과 보살핌의 힘

누군가가 책방에 녹보수 화분을 버리고 간 적이 있어요. 나무가 말랐길래, 책방 한쪽 구석에 방치했는데, 일곱 살 아이가 다른 화분에 물을 주면서 그 화분에도 같이 물을 주는 거예요. 저는 물을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아이는 올 때마다 빠짐없이 물을 주었어요. 얼마 뒤에 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새잎이 돋고 풍성한 잎을 피워냈어요. 그때 나무의 생



명력에도 감동, 아이에게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방에 있으면서 늘 아이들에게 배웁니다.

지구를 살리는 초록인문학

지구를 지키고 나아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나누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초록인문학”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피는 책과 쓰레기줍기 모임을 함께하는 “초쓰줍: 초등학생 쓰레기 줍기 모임” 어린이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함께해 주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앵콜 요청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이 짧게 끝나는 데에 아쉬움을 표하며 모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특히 “자연을 품은 인문학” 프로그램 4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후속 모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강사님도 기꺼이 추가 모임을 진행해 주겠다고 하셔서 연말에 후속 모임을 열 계획입니다.

작은 연결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책방들은 ‘작은 연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에 섞여 있을 때 얻지 못하는 작은 모임, 대면 연결에서 얻을 수 있는 충만함을 동네 책방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독서모임, 작가와의 만남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한 공간에서 호흡하며 나누는 설렘, 감동, 환희 등은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을 테니까요.

참여자 후기



- | 자연을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무척 유익한 강의였어요. 단순히 글쓰기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논픽션 글쓰기 전반, 뿌리부터 차근히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 숲, 식물,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던 차에 자연 글쓰기란 소재는 단번에 흥미가 당겼습니다. 강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품고 있던 의문과 답답함이 풀렸고 앞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팁도 주셔서 좋았어요.



밝은책방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40-1, 2층

변호사가 운영하는 책방으로, 헌법/인권 일반, 노동인권, 주거권, 여성인권, 장애인권, 아동인권, 동물권, 환경권으로 구분한 서가가 있습니다.

밝은책방의 프로그램

1. 법 토크
2. 노동법을 이해하는 시간
3. 기본법 탐구의 시간

함께 법과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

밝은책방은 8년차 변호사가 운영하는 책방으로, 책방지기의 특성을 살려 기본권을 중심으로 서가를 큐레이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인권 일반, 노동인권, 주거권, 여성인권, 장애인권, 아동인권, 동물권, 환경권으로 구분하여 서가를 꾸려놓고 있습니다. 법과 인권을 중심으로 하되, 인간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 책들을 폭넓게 선정하여 판매합니다.

시민들과 법과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공간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시민들과 법과 인권에 관하여 강연이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과 문화예술공간을 꾸려보고 싶은 마음에 책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채로운 공간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다채로운 책방 활동

그동안 법률가들이 낸 책으로 북토크를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문 읽기 모임도 한 차례 했습니다. 판결문 읽기 모임은 향후에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특별한 모임으로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시집 읽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윤은성 시인, 유승현 시인, 전영규 평론가가 함께 하는 모임인데요. 일주일에 한권의 시집을 읽고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법 토크를 기획하게 된 계기

뉴스에 맨날 나오는데 정작 내용은 잘 모르겠는 법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당 법의 전문가를 모셔서 진행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별금지법, 탄소중립법, 성매매특별법을 주제로 변호사님과 활동가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손님

정말 먼 곳에서 찾아오는 고등학생 손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법조인을 꿈꾼다면서 일부러 찾아온 거라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관심있는 인권 분야에 대해 함께 이야기나누고 법조인이 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알려주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책방의 역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동네책방이 꾸준히 지역 주민들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밝은책방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노동법을 이해하는 시간, 기본권탐구의 시간은 내년에 또 진행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법토크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법들을 발굴해서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자 후기



| 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하는 내용이며,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접하기 힘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유용하고 좋았습니다.

| 생소하게 느껴진 법률을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연대할 수 있는 취향 공동체를 찾아가는 시간

살롱드북은 르네상스 시대의 ‘살롱’처럼 책을 매개로 사람이 만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독립출판 및 인문학관련 단행본을 주로 취급하며 책과 어울리는 다양한 술을 판매하는 심야책방이기도 합니다.

취향을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공간

단순히 책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형서점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취향을 공유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손재주가 좋은 단골손님들 혹은 주변 소상공인들의 수공예품도 함께 판매하고, 책과 어울리는 술과 음료도 판매합니다. 독서모임, 필사모임, 글쓰기 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책을 중심으로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취향을 공유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1인가구를 위한 살롱과 모임도 열고 있습니다.

언니들살롱 ‘나를 설레게 하는 언니들’

책방을 찾는 20~30대 여성들에게 조금 먼저 걸어나가는 언니들의 이



살롱드북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1길 11 (봉천동) 1층

르네상스 시대의 살롱처럼 책을 매개로 한 소통의 공간이자 청년들을 위한 문화 아지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드북의 프로그램

1. 랜선 인문학 여행
2. 삶을 깨우는 인문학
3. 언니들살롱 ‘나를 설레게 하는 언니들’



야기를 들려주고 위로받고 공감하며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 여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의 언니가 될 이들에게 단단한 마음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취향공동체를 찾아가는 시간

“나를 설레게 하는 언니들”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같은 공감대 안에서 연대를 이루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처를 주고 받거나 SNS를 물어보는 사람들을 보면, 취향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공간을 운영하는 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시간, 행사 등 많은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 오프라인 운영에서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공간은 사람이 찾아오고, 소통을 해야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대신 각종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부 강연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기 를 보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 노하우가 있다면 주저 앉지 말고 그냥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롱드북이 동네 사랑방이 되기를

지역 주민들에게 멀리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문화 거점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참여자 후기



| 장애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듣고 나눠보니 더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꼭 변화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가까운 동네에서 편하게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배울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원레이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8길 14 (시흥동) 안채

마을에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공간 같은 서점입니다. 주인 없는 서점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의 아지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레이블의 프로그램

1. 혼자 읽기 어려운 수&과학 인문학
2. 퇴근 후 책방 “위안의 인문학”
3. “복을 싸다” 보자기 인문학

모두의 아지트를 꿈꾸는 공간

원테이블은 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개인 및 공동체와의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책방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으며 (시간나눔&후원) 함께 하는 이들의 아지트로 무대로 쉼터로 책방은 사용 가능합니다.

책을 매개로 하는 공간의 쓰임

수용 인원이 다른 3개의 방과 1층 모두 홀 그리고 전체 대관을 통해 북콘서트, 작은 음악회, 낭독극, 독서모임 등 다양한 모임들이 이루어집니다.

7평 작은 남짓한 공간에서 골문문화제, 소소한음악회, 월간낭독 등을 업니다. 동네 청년들, 골목어르신들, 고양이 3마리와의 추억은 늘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희망도서바로대출이란 사업으로 새 책을 서점을 통해 바로 대출 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도 반가워요.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복을 싸다”

지역에서 다재다능한 마법을 갖고 있는 강사님이 있었고 마침 보자기에 빠져 여기 저기 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보자기의 다양한 색감을 즐기고 재질을 만지는 활동을 통해 보자기 인문학이 정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상상하며 만드는 모임

어떤 사람들에게 보자기 인문학을 하면 좋을까 고민했죠. 금천구에는 구로나 영등포구처럼 다문화 및 외국인 인구가 많습니다. 게다가 제가 예전에 다문화 관련된 일을 했었다 보니 이분들에게 보자기 인문학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보자기의 의미를 살펴보고 각자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좋은 기회 겠다 싶어서 기획해 보았습니다.

보자기 인문학 이후 이야기들

보자기 수업을 지인을 통해 늦게 전달받은 한 분은 수업 후 남편과 친구에게 보자기로 물건을 정성껏 포장하여 선물을 했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수업 중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보내길래 “누구에게 보내냐”고 하니 남편에게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된 것도 참 좋았습니다.

동네책방의 존재 이유

코로나19 이후 봉 뜯 시간을 소규모 모임이나 인문학 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테이블은 때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때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온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일은 동네서점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후기



| 마을에서 쉽게 마실가듯 걸어가서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혼자서는 읽어보기도 어려웠고 눈길도 잘 안 가던 책을 소개해 주고 쉽게 설명해주어 유익했습니다.



책이는당나귀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6길6, 1층

출판사 편집자와 여행작가 생활을 했던 책방지기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독서토론과 글쓰기 모임을 진행합니다.

책이는당나귀의 프로그램

1. 동양사상으로 읽는 인간과 우주
2. 잡지로 읽는 인문학
3. 서울 역사 스케치

자발적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책이는당나귀'라는 책방 이름은 당나귀에 책을 싣고 산골마을을 찾아다니는 콜롬비아의 '당나귀도서관'에서 따왔어요.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동네에 책을 배달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출판사 편집자와 여행작가 생활을 했던 책방지기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독서토론과 글쓰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나귀통신을 발행합니다

격월간 소식지인 <당나귀통신(Donkey Post)>은 출판계 전문가의 칼럼과 지역주민의 에세이를싣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가게를 인터뷰합니다.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동네의 명소를 안내하고, 전국의 매력적인 독립서점도 소개합니다. 지역의 '책·예술·문화' 관련 내용을 담아 전국 60여개 서점에 배포함으로써 '문화의 발신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사람들

책이는당나귀의 슬로건은 한자로 '책이당(冊以黨)'입니다. '책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책을 매개로 한 '자발적 문화공동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머든지 글쓰기'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참가자들이 '신춘문예에 소설 투고하기'를 목표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자발적



으로 목표를 세우고, 낙오자가 없도록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모습이 제가 꿈꾸던 '자발적 문화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역사 스케치

역사 건축물은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그려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관찰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사물을 선으로摹기다보면 대상의 특성과 모양새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궁궐 건물의 처마 하나를 그리더라도 그 역사성이 저절로 마음에 각인되는 거죠. '서울 역사 스케치'를 통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사성을 눈과 손을 통해 음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잡지로 읽는 인문학

철학, 여성, 과학, 문학 4종의 잡지를 한 달에 1권씩 읽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잡지이다 보니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철학과 과학은 공부가 부족해 잘 못 읽겠다는 분이 많았어요. 자신의 독서 습관이 문학 쪽에 치우쳐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거죠. 잡지를

통해 참여자의 독서 영역을 넓히고, 인문학에 대한 흥미를 북돋게 되어 보람을 느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책이는당나귀의 내일

단발성 강의로 개념을 맛보는 단계를 넘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제공하려 합니다. 올해에는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을 통해 동양사상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내년에는 《주역》 심화반을 꾸려볼 계획입니다. 혼자서는 공부하기 힘든 커다란 학문이기에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공부할 도반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후기



| “동양사상으로 읽는 인간과 우주”에 참여했어요. 혼자 읽기 힘들었던 내용을 함께 읽으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 “서울 역사 스케치”에 참여해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지역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장희 작가님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톨쉽북스토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6길 21, 지하1층

책과 예술공연이 함께 하는 서점으로 항해사 출신 서점 대표가 고른 해양도서들과 서울시민정원사와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활동을 하는 직원이 마련한 특별서가가 있습니다.

톨쉽북스토어의 프로그램

1. 바다에서 한강으로
2. 악기와 함께하는 여름밤 음악이야기
3. 그림책과 함께 성장하기

독자 스스로 하나의 콘텐츠가 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일

톨쉽북스토어는 책과 예술 공연이 함께 하는 서점으로 '좋은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대지기가 되고자 합니다. 항해사 출신의 문화해설사 서점 대표와 정원사와 미술관 도슨트로 활동하는 직원이 마련한 주제가 있는 서가, 보름마다 바뀌는 특별서가를 운영하며 매일 고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이라는 지역과 책방

노량진은 어떤 이에게는 학원가나 낙후된 동네로 인식될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펄떡이는 전국 수산물이 모이는 수산시장이 있고, 사육신묘 공원을 비롯한 동작구 문화유산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 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서점이 더해져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독서클럽 3곳과 기타 클럽도 있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모임을 만들 계획입니다.

책과 공연의 만남

책과 공연이 함께 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서 피아노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각종 클래식 연주자들을 섭외해 악기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한 뼘 무대'를 진행했고, 기타 동호회가 결성되어 장소와 음향장비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악기와 함께하는 여름밤 음악이야기

보통 클래식 음악을 직접 듣는 기회가 흔치 않고, 클래식이 어렵고 낯설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 동네 책방에서 작은 연주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연주자와 관객의 거리가 1미터 남짓인 밀착된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연주를 하고 악기를 설명하는 기회를 통해 멀게만 여겨졌던 클래식 음악을 조금 가깝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했습니다.

흥이 가득한 강연회와 영감을 주는 음악회

저자 강연회 시간에는 저자의 팬들이 오셔서 팬미팅 같은 열띤 분위기를 보여주어 덩달아 흥이 가득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음악이야기 시리즈 때는 한동안 음악을 거의 듣지 않고 지냈다가 아름다운 음색에 반해 다시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는 분이 계셨고,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께서 기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어린 아들을 데려와도 되겠는지 문의하는 분도 기억나고, 나이 지긋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참여한 신청자도 기억이 납니다.

용기내어 한 발짝씩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활발하게 대면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행사를 독려하는 지원사업이 있어 용기를 낼 수 있었고, 한 번의 행사로 쌓인 노하우와 인연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 점점 재미있는 만남들을 시도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점에 오는 발걸음이 즐겁도록, 독자 스스로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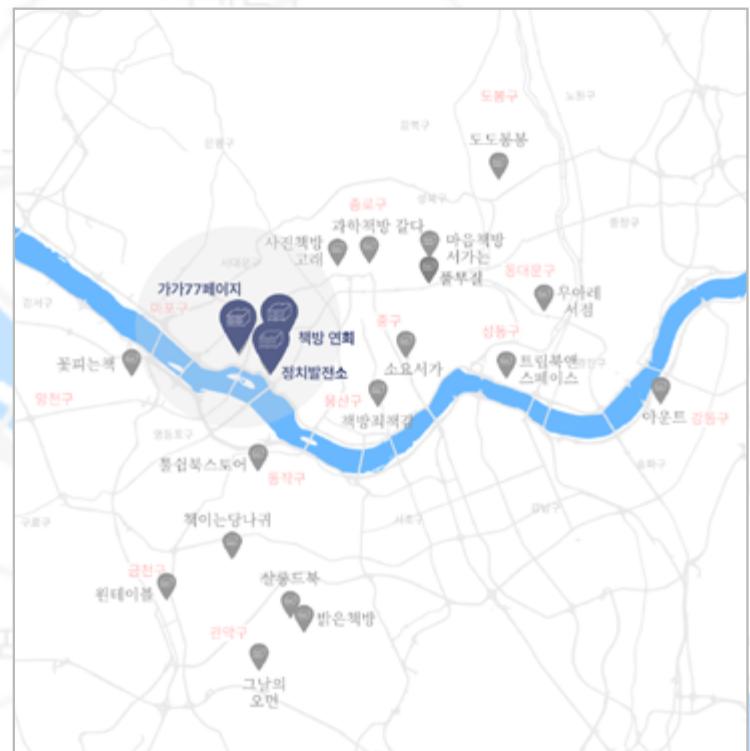
참여자 후기



| 흔하게 접해보지 못한 가야금을 직접 보고 소리를 듣고 가야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가야금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 노량진, 동작구에 관한 역사를 알게 되어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사용하는 주소는 택배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던 점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 서북권



마포구 가가77페이지
마포구 정치발전소
마포구 책방연희



가가77페이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74-1 지하 1층

망원 시장과 월드컵 시장 사이에 있는 동네서점. 독립출판물과 기성출판물을 조화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가77페이지의 프로그램

1. “나를 채운 어떤 것” 퇴근길 인문학 영화 모임
2. “언젠가 우리 다시” 여행 인문학 북토크
3. “함께 살아 가기 위해” 인문학 독서모임

부담없이 즐기는 평생교육, 퇴근길 인문학 영화 모임

가가77페이지는 망원에 있는 동네서점입니다. 책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본 아니라 월 10여 차례의 행사와 클래스를 통해 다양한 이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간과 베스트셀러는 없을 수 있지만 각자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서점입니다.

가가77페이지의 하루

책방에는 동네를 지나치다 자주 들르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타지역에서 이 공간이 궁금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북토크를 통해 작가와의 만남을 마련하고 지역 분위기에 어울리는 인디뮤지션의 공연도 열고 있어서 문화생활을 즐기려 찾아주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채운 어떤 것

인문학은 사고의 기반이 되는 근원적 학문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등한시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꼭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근원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친숙한 매체인 영화와 함께 얹어 “퇴근길 인문학 영화 모임”으로 기획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와 책방 사정

실제 코로나 기간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더 열심히 해야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기초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영을 전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 당사자가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방법을 찾는 일 같습니다. 체력을 키우고 충분히 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이후에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추후에 비슷하지만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분들과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가가77페이지가 생각하는 평생교육

교육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을 내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식과 능력을 늘려가는 경험도 좋지만 그 시간이 즐겁고 느끼는 바가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즐기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일이야말로 평생교육의 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개념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진정한 평생학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지치지 않고 조금씩 시도할 것

책방 운영에 여유가 생기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식과 능력을 늘리는 ‘교육’과 배우는 재미를 알아가는 ‘학습’의 조화를 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후기



|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심해지는 열대야와 폭우, 기후 이상 현상에 관심이 갔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나도 모르는 새, 어린 시절부터 정하는 동화 속 이야기에 성역할을 부여받고 있었을 수도 있구나 편견이 생겼을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정치발전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7길 8 (합정동) 2층

‘정치사회 전문서점’으로서 정치사회 주제들을 선정하여 매 월 ‘도서 큐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토크, 정치고전강독, 비교민주주의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정치발전소의 프로그램

1. 돌봄시민 프로젝트
2. 쓰레기라는 취향
3. 세상의 모든 민주주의
4. 저널P_대담, Issue&Trend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가는 공간

정치발전소는 정치사회 분야 서적 전문 서점으로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과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정치학의 오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점에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고전들로부터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들은 물론, 현재 우리 사회가 다루어야 할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의제를 소개하고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책들을 큐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정치발전소를 찾는 사람들

서점의 성격상 주요 고객은 국회 및 유관기관에 일하는 보좌진 및 종사자, 정치를 전공하는 학생 등이주 방문객이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정치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잊지 않으려 하시는 시민분들이 특정 동네에 국한되지 않게 많이 많이 방문하고 있어요.

“쓰레기라는 취향”과 리사이클링

‘기후위기’ 문제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와 정치가 다루어야 할 시급한 이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정쟁적 정치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과의 작은 실천을 통해 문제에 본질에 대해 접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시민 프로젝트와 대안 찾기

돌봄 시민프로젝트를 통해 돌봄 당사자들이 모여 마음을 열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얘기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것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발전소가 생각하는 평생교육

고령화 시대이자 산업전반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에 평생교육의 의미는 현재보다 훨씬 중요해지고,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문적 지식을 쌓는 의미와 역할을 넘어, 평생의 교육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진로까지 모색할 수 있는 방면으로 여러 기관에 난립한 교육들이 재설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시민 교육의 확대도 기대합니다.

코로나19와 정치발전소

주로 책의 현장 판매와 교육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행으로 서점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수가 확연히 줄어, 교육사업들을 일부 연기하거나 취소 해야 했거든요. 향후 온라인을 위주로 교

육의 방식을 바꾸어 수행하면서 작은 돌파구를 찾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꾸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크게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곳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프로그램을 통해 쌓아온 기획과 의제를 심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여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프로그램에 지원, 그동안의 성과를 지속하고 심화하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참여자 후기



| 다양한 경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자 많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나가면서 서로 서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양한 면을 배려한 듯한 프로그램의 장소, 시간, 모더레이터의 역할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책방연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5길 3. B1F

‘책, 연희(演戲, a play)하다’의 줄임말로 말과 글, 동작으로 책과 도시를 이야기하는 도시인문학 서점이자 큐레이션 서점입니다.

책방연희의 프로그램

1. 로컬인문학 “나의 사적인 지도 만들기”
2. 도시인문학 “도시를 문학으로 기록하는 글쓰기”
3. 예술인문학 “흔들리는 드로잉”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느슨한 연대가 되길 희망하다

책방 연희는 말과 글, 동작으로 책과 도시를 이야기하는 도시인문학 서점이자 큐레이션 서점입니다. 작가이자 도시연구자가 운영하는 큐레이션 서점으로,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곳입니다. 느슨하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느슨한 연대가 되길 희망하는 책방 연희는 작가들과 창작자, 지역주민의 플랫폼입니다.

홍대앞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책방

책방 연희는 홍대입구역 경의선책거리 인근에 있어요. 장소 특성상 동네주민뿐 아니라 홍대를 찾는 방문객이 더 많은데요. 홍대라는 장소성이 아무래도 패션, 미술, 인디음악, 독립출판 등 다양한 문화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니까요. 또한 모임이나 클래스의 경우, 지역에서 KTX를 타고 오시거나 경기도권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책과 관련된 다양한 모임과 클래스

읽고 쓰는 일을 중심으로 모임과 클래스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매월 작가를 초청해 진행하는 작가와의 만남은 물론, 글쓰기, 그림책 스토리보드 만들기, 인디자인 배우기, 여행책 만들기, 독립출판 클래스, 온라인 독서모임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도시인문학, 도시를 문학으로 기록하는 글쓰기

근대, 현대 도시를 문학으로 기록한 글을 읽고, 도시를 기록하는 글쓰기에 관해 알아본 후, 직접 자신이 경험한 도시의 무엇(삶, 예술, 문학, 문화 등)을 짧은 글쓰기를 통해 기록해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신이 사는 동네나 좋아하는 동네에 관해 깊이 생각하거나 제대로 기록하는 일이 드뭅니다. 인스타그램에 몇 장 올리는 사진 정도뿐이죠. 제대로 동네를 들여다보고 기록해 봄으로써 도시에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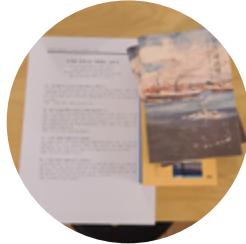
도시인문학을 통해 기록하기 시작한 사람들

“도시인문학, 도시를 문학으로 기록하는 글쓰기”의 경우, 대부분 글쓰기와 동네에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데요. 이제 막 글쓰기를 시작하거나 글쓰기를 해보고 싶은 분들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동네나 기분, 일상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생겨서 무척 뿌듯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배움터가 많아지기를

‘교육’이라는 건 사실 거창한 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평생 배우면서 삽니다. 직업이나 밥벌이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주부, 직장인, 시니어 등 생애주기나 상황에 따라 원하거나 필요한 교육이 달라지는 데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성되어야 할 것 같고요. 동네서점과 같이 생활에서 밀접한 공간에서 이뤄진다면 접근이 용이할 듯 합니다.

참여자 후기



| 드로잉이 뭔지 모른 채 호기심에 신청해서 참여했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그림을 그리니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 도시인문학이라는 소재가 독특해서 좋았어요.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책방에 오게 되었고 다른 곳도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 나이가 많아 이런 책방에 선뜻 참여하기 힘든데, 이런 기회에 올 수 있어 좋았고 다양한 글쓰기에 대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소개

서울 시민의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서울 평생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평생교육 전문 기관입니다.

설립근거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의 운영)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장 제17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서울 평생교육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평생학습 정책 연구



- 자치구, 평생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평생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전문가 연수, 컨설팅 등으로 서울 평생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평생학습 전문성 강화](#)



- 서울 시민에게 더 넓고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생학습 기회 제공](#)



- 교육이 더 필요한 시민들에게 더 고른 평생교육 기회를 마련합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평생학습](#)



- 누구나 일상 속에서 평생학습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산](#)

서울 평생학습 OVERVIEW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 2021년 기준



평생교육 참여율
29.4%



평생교육 참여자
16,497,271명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126,811개



평생교육 기관
1,812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서울시민 평생학습 기회 제공 현황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동네배움터	책방배움터
프로그램 수	998개	120개	1,392개	66개
참여자 수	88,051명	1,234명	17,807명	1,283명

* 동네배움터, 책방배움터: 2022.12. 결과보고 기준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 소개

사업 개요

● 사업 소개

동네서점을 기반으로 서울시민의 질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동네서점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 사업 목적

- 동네서점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근거리 생활권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 동네서점 관계자 역량강화·컨설팅 지원을 통한 사업의 지속적인 질 관리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 사업 기간 2022년 5월~10월 30일까지

● 선정 규모 서울시 동네서점 20개소(12개 자치구)

● 사업 내용

서점의 문화콘텐츠 전문성을 기반으로 열리는 북세미나, 토론, 낭독회, 독서클럽, 콘서트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 사업 홍보 및 캠페인

✓ 공식 홍보채널 운영(인스타그램)

참여책방 소개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정보 안내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사례 소개

✓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20곳서 다큐멘터리

제작, 북토크 등 프로그램 진행(2022.5.26.)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매거진 '라이프롱런' 홍보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 운영 기간 : 2022년 5월~10월 30일
- ◆ 운영 기관 : 서울시 동네서점 20개소
- ◆ 운영 내용 : 서점의 문화콘텐츠 전문성을 기반으로 열리는 북세미나, 토론, 낭독회, 독서클럽, 콘서트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 운영

· 목적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관계자 연수 및 컨설팅 과정 운영을 통한 사업 수행

역량 강화 및 사업성과 관리·확대

· 대상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 실무자 및 관계자

· 일정 8/29~9/26 (총 4회)

· 방법 오프라인 2회, 온라인 2회

· 주요 내용

◆ 창작과 협업(책이 서점으로 가기 전까지)

◆ 동네서점 프로그램 홍보 전략, 서점 홍보 마케팅과 온라인 스토어

◆ 동네서점 브랜딩 전략

◆ 프로그램 기획 및 큐레이션

◆ 에세이 쓰기와 북클럽 운영 노하우

● 사업 성과공유회 <더 가까이 더 깊이 동네책방> 개최

· 일시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13:30~16:30

· 장소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4층 미래홀

· 대상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 관계자

· 주요 내용

◆ [영상 시청]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스토리

◆ [사례 공유]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례

◆ [투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투어

◆ [네트워크] '2022년은 나에게' 이벤트

■ 서울시민 대상 5가지(과학·공간·법·문학·철학) 맛보기 북클럽 운영 및 올해 나에게 기억에 남는 책 이벤트 실시



발간 번호 SLEI-2022-B-023

2022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성과자료집

발행일 2022.12.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편집인 지역평생교육사업팀(문화교육센터)

팀장 민병철

대리 최수희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도화동) 14층

전화 02-719-6427

홈페이지 <http://smile.seoul.kr>

편집 및 디자인 김민희

* 본 제작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